



트럼프 대선 승리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장기 갈등으로 접어든 전쟁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찾기 힘들 수 있다. 유약해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의 두려움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우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과 2025년 1월 20일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 당사자가 겨울을 대비해 움츠러들면서 전쟁의 템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군사 작전 활동 템포가 빠른 봄과 여름철보다 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기간 어느 쪽도 결정적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전황이 정체된 가운데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 반격의 실패, 2023년 후반 우크라이나 정부 내 민·군 간 위기, 2024년 초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군수품과 장비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 논쟁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지지자들의 정치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공세 캠페인을 수행해 왔다.

현재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2023년의 반격과 동원을 둘러싼

길고 격렬한 논쟁의 여파로 군대를 재편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여 러시아와 그 지지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더욱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전선으로 속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 8월 러시아 쿠르스크주 일부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다 (출처: www.vedomosti.ru)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5년에는 네 가지 요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러시아 공세의 영향과 러시아 지상군이 전쟁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추가 영토를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것이다. 러시아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여러 방향과 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며, 이



는 키이우가 향후 러시아 공세에 대비하여 보존하고 싶어 하는 군대와 화력을 투입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 쿠르스크주 내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의 결과일 것이다. 2024년 8월 기습 공격으로 푸틴과 러시아군에 이미 굴욕감을 안긴 우크라이나는 이 새로운 작전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성공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쥐고 있다.

셋째, 겨울이 2025년 우크라이나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가 겨울철에 필요한 우크라이나 발전 용량의 약 50%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국 정부와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견해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겨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가 장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하고 봄에 지상 작전을 위한 최종 평가, 계획 및 물류 비축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작전으로 전쟁의 현상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동원하여 쿠르스크 탈환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갈등의 역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다시 한번 당선됐다 (출처: www.vedomosti.ru)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질지를 가늠해 볼 몇 가지 지표가 있다. 첫째, 대선 후보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공개적으로 밝혔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에서 밴스는 “우크라이나의 도전 과제는 수학이다. 우크라이나는 가혹한 징집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군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은 미래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겹보기에 우호적인 전화 통화를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버거울 것이다. 2024년 5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호의적 견해를 보인 사람은 절반도 안 됐고, 공화당 유권자 절반가량(49%)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의 이런 감정을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고려하면, 트럼프 2기가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세계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는 2023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4개월간 중단하도록 부추겼고, 방위비 지출이 충분치 않은 NATO 국가들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겠다”라고 말했으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의 측근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보고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둘째, 3년에 걸쳐 장기전으로 이어져 온 해결이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된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 당사국과 그 동맹국들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유럽은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게 놔둘 수 없고,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영토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은 전쟁을 끝낼 어떤 압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24년 10월 28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결하여 끝낼 계획이라고 전 대통령 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푸틴은 이미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주일 안에 끝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트럼프는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더는 (지원) 안 된다, 협상해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에 대해 트럼프는 러시아가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지원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크 월츠(Mike Waltz)의 제안대로 트럼프는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낮춰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크림반도를 의제에서 제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 자치 구역을 설치하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를 몇 년 동안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트럼프는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것인가? FT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2024년 9월 비무장 지대 양쪽에 자치 지역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를 NATO에서 제외하여 전쟁을 동결한다는 아이디어를 설명했

다. 이런 방식은 1950년 한국전쟁의 정전/휴전 모델이다. 1953년 휴전 당사자인 미국과 유엔, 북한과 중국은 북위 38도선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남북으로 각 2km 지역(총 4km)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여 정전/휴전했다.

트럼프의 오랜 고문 중 한 명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 동결 계획은 이행되지 않은 2014년과 2015년의 실패한 민스크 협정을 재고하는 것이다. 이 합의에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 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자치 구역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는 민스크 합의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 계획에는 강제 집행 메커니즘과 합의 위반에 대한 결과가 포함된다.

흥미롭게도, 이 계획에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철학이 스며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전쟁 동결 지역의 질서 유지는 NATO 군이나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유럽의 군대가 해야 한다. “미국이 고집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강제 집행 메커니즘에 미국인을 두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 비용을 대지 않을 것이다. 유럽이 그 비용을 댈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외정책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안으로 지목된다. 트럼프가 장담하는 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